



발행 번호 제2013-12호
2013. 10. 29

나라사랑

발행처: (사)국학원
발행인: 장 영 주
☎ 041-620-6700
www.kookhakwon.org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67-1

단기 4346년 10.19 경기국학원 한민족리더십 세미나



CONTENTS

- 1 나라사랑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 - 홍익웨딩을 올린 김승원, 박은정 부부
- 3 나라사랑 국민교육 현장 - 경기 국학원 한민족리더십 세미나
- 4 나라사랑 내고장 사랑 - 전남 고흥보건소 힐링명상지도자 양성과정 졸업식
- 5 나라사랑 청소년 교육 특별 기고 - 김수곤 경남국학원 이사 / 밀양동명고 교사 '나라사랑 올바른 역사관으로'
- 7 나라사랑 국토순례 - 김해 양산 선도문화답사
- 8 나라사랑 국학칼럼 - 장영주 국학원장(代) '대한민국이여, 이제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자'
- 10 일지희망편지 '얼씨구 좋은 나라 대한민국' 시리즈 1

“ 나라사랑 교육이나 봉사활동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익웨딩 3호 김승원 박은정님 부부, 국학원에 100만원 쾌척



대학에서 만난 지 7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 결혼식을 올린 김승원, 박은정 씨. 홍익나눔 웨딩의 세 번째 주인공이다. 결혼식장은 어디든 흥겨운 분위기지만, 장영주 국학원장의 주례로 열린 이들의 결혼식에서는 형과 함께 한판 신나게 춤을 춘 신랑으로 인해 웃음바다였다.

신랑 김승원 씨는 열렬한 국학활동가 집안이다. 아버지는 김수홍 용인 국학원장, 어머니는 노분옥 경기국학원 사무처장이고 그리고 형 김대현 씨, 형수 김수정씨도 국학활동을 한다. 특히 형 내외는 올해 1월 국학원 홍익나눔 웨딩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신혼여행을 마친 김승원 씨와 인터뷰를 나눴다.

신랑과 신부가 대학 때 만난 캠퍼스커플이라고

제가 원래 화학을 전공했는데 물리치료에 관심이 많아 뒤늦게 대구보건대학에 들어갔다가 같은 전공을 하는 신부를 만났죠.

형 김대현 씨에 이어 홍익나눔 결혼식을 했는데

형이 지난 1월 결혼식에서 홍익나눔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요. 10월에 결혼예정이라서 매월 10만원씩 모았어요. 신부도 좋은 일이라고 기쁘게 찬성해주었죠.

결혼식 준비하는 데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천절 3일 후가 결혼식이었어요. 경기국학원에서 1천 명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

개천행사를 개최한다고 부모님이 운동 개천절에만 마음을 쓰셔서 이해는 하지만 약간 서운하기도 했죠. (웃음)

신랑 가족들이 모두 국학활동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느라 부모님이 개천절 요일제 반대 서명운동, 우리얼 찾기 서명운동을 하실 때, 광복절, 개천절 행사 준비할 때 조금씩밖에 돕지 못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활동에 열렬하게 참여하는 부모님을 보면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신부 박은정 씨는 국학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부가 현재 물리치료사로 일하는데 얼마 전부터 미용기술을 배우겠

다고 하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앞으로 '가족봉사단' 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일을 돕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아직 국학활동을 잘 모르지만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익니눔한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으면 하는지

국학원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세우고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나라사랑 국민교육이나 홍익봉사활동 등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홍익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베푸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찾아주고 다함께 이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동반자로 성장시킨다는 목표가 마음에 들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승원의 형인 김대현씨도 앞서 올해 1월에 김수정씨와 화촉을 밝히면서 역시 100만원을 국학원에 기부를 하였다.

나라사랑 국민교육 현장—경기국학원 한민족리더십 세미나

“영원한 한류를 찾아서”

10.19 경기국학원 한민족리더십 세미나

지난 10월 19일 토요일 안산 동의성 단원병원 9층 송산관에서는 장영주 국학원장(대)의 한민족리더십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20여명의 중고생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석해 한글과 태극기, 천부경과 율판, 단군과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고, 신채호, 조마리아 어록체험 시간을 통해 나라를 지켜준 선조들의 뜨거운 심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슴 뭉클한 선조들의 우국충정의 마음에 모두들 눈시울을 적시며 일상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며 선조들이 지켜주고, 물려주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치욕스런 역사를 다시 겪지 않도록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이기도 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소섭의, 인원모집, 인사관리 등 경기 안산국학원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혼연일체되어 준비한 것으로 안산시 사업비 지원과 장소 무료대여 및 서부뉴스 등 12개 외부단체의 후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안산시국학기공연합회의 화려한 기공 축하 공연과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유용근 경기 명예국학원장, 인문기 안산시국학기공연합회장의 힘찬 격려 속에 치루어진 한민족 리더십세미나는 앞으로 전국에서 나라사랑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정한 한류의 뿌리인 한민족 본연의 국학정신인 홍익정신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파될 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장영주 국학원장(대)이 경기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민족리더십 세미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시민들이 한민족리더십세미나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강의의 경청하고 있다.



경기도한민족리더십 세미나 시작에 앞서 경기도 국학기공연합회 나라사랑 기공팀에서 태극무를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민족리더십 세미나가 끝나고 유용근 경기도 명예국학원장(윗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과 경기도 국학원 임원진들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단체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나라사랑 내고장 사랑 —전남 고흥보건소 힐링명상지도사 양성과정 졸업식



(앞줄 의자) 왼쪽부터 한승용 중앙국학원 사무처장, 박광창 고흥군보건소장, 조은세 전남국학원 사무처장

“ 고흥군의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 ”

10.24 전남 고흥군 보건소 힐링명상지도사 양성과정 졸업식 개최

지난 10월 24일 전남 고흥군보건소에서는 힐링명상지도사 양성과정 졸업식이 있었다. 고장 이름만큼이나 이 날 분위기는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의 기쁨과 행복으로 격양되었다. 조은세 전남국학원 사무처장은 8월말부터 10월 24일까지 15주 동안 38명의 보건소 직원들대상으로 힐링명상지도사 양성과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아울러 박광창 고흥보건소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소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마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군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힐링명상인 것 같으며 이 자격증을 갖고 보람있고 재미있고 알찬 공직생활이 되길 바란다 하였다. 이어서 한

승용 중앙국학원 사무처장은 힐링명상종주국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축사의 말문을 열었다.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이유는 우리말속에 다 들어 있다고 하였다. '기분이 좋다' 라는 우리말은 '기의 분배가 조화롭다' 는 뜻으로 힐링이란 바로 나의 기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서로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았으니 고흥군민들, 여러 사람에게 전파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날 우수상을 받은 한 직원은 무엇보다 이 방법을 고흥군 어르신들에게 전할 수 있어 너무 좋고 이 자격증으로 인해 많이 행복해질 것 같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힐링명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고흥보건소 직원들과 이들을 지도한 조은세 전남국학원 사무처장(가운데)



한승용 중앙국학원 사무처장이 고흥보건소 직원에게 힐링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나라사랑 청소년 교육 특별 기고

나라사랑 올바른 역사관으로

글 | 김수곤 경남국학원이사. 경남밀양동명고 교사

30년 가까이 고등학생들과 학문과 지식,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생활하고 있다. 졸업을 하고 학교를 찾아오는 졸업생들이 다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수업시간에 배운 전공도 중요하지만 자투리 시간에 가끔 들려주신 선열들의 인간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양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이 인성교육보다는 진학위주로 얼마나 치우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한 달 전 각 학교에서는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선정 작업을 했다. 교과사에서 발행된 역사교과서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뉴라이트가 중심이 된 친일, 식민사관으로 저술된 역사교과서는 식민교육이 근대화를 앞당겼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이며,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 때 직업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임시정부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승만이 영웅이 되면 4·19는 쿠데타가 되고 8·15가 광복절이 아니라 건

국절이 되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사라질 것이며, 일제의 식민에서 광복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독립

군들의 명예와 친일행각의 불명예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묘략임을 깨어있는 국민들은 안다.

통일문제는 뒤편으로 밀어둔채 이념, 사상문제로 국론 분열

국사편찬위원장뿐만 아니다. 한국 고유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한국학중앙



단기 4343년 개천절을 맞아 경남국학원 주체로 밀양 천진궁에서 개천대제가 열렸다.



밀양동명고 학생들의 중국내 항일 유적지 견학.
 사진은 중국 하북성 진기료에 열사 능원에 모셔져 있는 석정 윤세주 열사의 묘
 연구원장도 교학사 교고 한국사 교과서의 원조 격인 뉴라이트 계열이다.
 을사오적의 중심이었던 이완용 집안의 이병도는 해방이후 문교부장관을
 했고, 그의 손자 이장무는 서울대총장을, 이견무는 문화재청장을 역임했
 다. 해방된 지 7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친일의 역사가 우리
 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이렇게 예언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
 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기간질하며 노예
 적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아베 노부유키의 식민사관의 저주에서
 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문제는 뒤견으로 밀어둔
 채 이념, 사상 문제로 국론이 분열에 헤매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국정신과 교육정신이 같은 나라

이제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배자들이 식민을 위해 조작 왜곡한
 역사에서 깨어나 한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天符經)의
 천지인(天地人)정신에 근본을 둔 교육기본법 2조에는 “홍
 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
 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국정신과 교
 육정신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무엇보다 역사교육은 입시위주의 암기식에서 벗어나 체험
 교육이 인성에는 물론 학문의 목적이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학문이 되어야 함을 스스로 느끼는 살아있는 교육이
 라고 생각한다. 밀양에는 의열단장을 지낸 약산 김원봉을 비롯
 한 석정 윤세주 열사의 경천 송조 애인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우리나
 라에는 독립기념관이 천안, 안동, 밀양에 있고 밀양 영남루에는 천진궁
 (天真宮)이 있어 국조 단군과 8개국 시조를 모시고 있다. 해마다 밀양의
 8개 고등학생들과 중국으로 역사기행을 하는데 올해 밀양여고를 졸업한
 박영경 학생은 법대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역사기행을 통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삶을 알게 되었는데 할머니들의 가슴에 멍
 든 상처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라고 했다.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했다. 우리의 홍익정신은 지구인 정신철학이다. 우리의
 위대한 홍익사관으로 나와 민족과 인류를 생각하는 지구인이 되자.



밀양동명고등학교 '지사홍'(지구를 사랑하는 홍익인간)클럽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물구나무서기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가운데 뒤에 김수곤교사



밀양 동명고등학교 홍익만 학생들 동천제(東天祭) 축제에서 국학기공 시범장면

나라사랑 국토순례 공지



▲ 왼쪽부터 답사에정지인 산청 전 구형왕릉, 김해 구지봉의 지석묘, 『동여비고』에 나타난 칠점산과 초현대 (자료제공 : 문화재청 홈페이지)

신라 · 가야 초기 교류사 속 나타난 조화정신을 되짚는 선도문화답사 개최

참시선인, 물계자를 통해 본 신라 · 가야 초기 교류사 속 조화정신 집중조명
구지봉, 초현대, 칠점산, 마고산성 등 김해 · 양산지역의 선도문화유적지 방문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옛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는 신라와 가야의 초기 교류사 속의 선도 천일합일(신일합일)문화와 조화사상을 현존하는 유적을 통해 직접 느껴보기 위한 선도문화답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천손문화연구회는 오는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김해 · 양산 지역의 선도 유적을 돌아보는 선도문화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한민족 고유 선도문화의 조화정신을 오롯이 간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라나 백제 유적지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온 김해 · 양산 지역의 신라 · 가야 선도 유적지를 돌아보며, 특히 양국의 초기 교류사에 나타난 선도의 '조화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통일신라시대의 유명한 학자인 최치원 선생은 <난랑비서문>에서 "나라에 '풍류도'라는 현묘한 도가 있어서, 백성을 교화해 왔으며,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고 있고, 그 연원은 선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듯,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 불교, 도교 이전에 고유의 문화 전통이 있었으니 이를 '선도(仙道)'로 통칭할 수 있다.

'선도(仙道)'는 풍류도, 신선도, 선교, 신교, 고신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종교의 차원을 넘어 '신선'으로 표상되는 전인적 인격체가 되는 심신수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하늘문화(제천문화, 천손문화)', 또는 '밝문화(배달문화)'에 그 본질을 두고 있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이나 하늘의 밝음, 해 · 달을 숭상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밝음과 사람 내면의 밝음을 하나로 보는 '천일합일(신일합일)'의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선도문화는 신라와 가야의 초기 교류사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신라 초 이름 높은 선가(仙家)였던 참시선인(昆始仙人)과 물계자(勿稽子)의 행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이들은 이웃나라인 금관가야의 왕과 조우할 정도의 높은 신분과 삼랑주의 군사 · 행정 책임자로서 선도문화의 조화(調和)정신에 입각하여 금관가야와의 화친에 주력하였다.

천손문화연구회의 정경희 교수(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과)는 "신라, 가야의 초기 교류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유전통인 선도의 조화정신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김해 · 양산 지역의 선도 문화 유적 탐방을 통하여 삼국초기까지만 해도 그 원형이 살아있던 선도 조화정신의 실체를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답사 예정지는 산청의 전 구형왕릉, 김해의 구지봉, 수로왕릉비, 초현대, 칠점산, 양산의 수두리 일대, 북정리 고분군, 성황산성, 징심현 유지, 총렬사, 마고산성, 황산강 신라·가야 접경지 등으로 민족 고유 정신을 바르게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이번 답사를 주최하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과 천손문화연구회는 한민족의 유구한 정신 속에 살아있는 선도과 천손문화를 연구, 복원을 위하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의 국학과 동문, 재학생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 천손문화연구회 김해·양산 선도문화탐방 담당자 010-9060-7780

나라사랑 국학칼럼—장영주 국학원장(代)

국학칼럼 — “대한민국이여 이제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자”

글 | 장영주 국학원장(代)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 파괴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결하시고 꼭 5개월 후인 다음해 3월 26일 순국하신다. 아직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 중이었고, 일제는 그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할 것을 약속했던 터이었다. 일제는 왜 하필이면 꼭 같은 26일에 형을 집행하였을까?

같은 해, 1910년 10월 24일. 안동의 치암고택(馳岩古宅)에서는 아원 몸의 향산 이만도 선생이 조용히 눈을 감으신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요, 대신으로 한 술 밥을 입에 넣기도 차마 부끄러워 굶어 돌아가신다. 그로부터 103년이 흐른 서기 2013(단기 4346)년 10월,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일 년 이상 시끄럽다.

그러나 눈을 밖으로 돌리면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이다. 6·25 동란이 끝나던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7달러로 소말리아 수준이었다. 그러기에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 상의 기적은 단 하나, ‘코리아(KOREA)’라고 한다.

유럽의 국가들이 몇백 년에 걸쳐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불과 60년 만에 이룩했기에 대한민국은 비 유럽국가 중에서 정치와 경제의 동시에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아시아의 유럽이라는 일본은 2009년도에나 정권교체를 하니 민주주의도 우리가 꼭 10년을 앞선 것이다.

IT 분야는 미국, 한국, 인도 3국이 각축을 하고, BT 분야 역시 미국, 영국과 더불어 1-3위를 다툰다. NT 분야는 머리카락의 1/30만 분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극미 현미경을 발명하고 CT 분야는 드라마를 선두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휩쓸며 윤사미는 일본 총리보다 인기가 높고 한국의 비보이, 싸이를 비롯하여 K-POP은 세계 제일이며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까지 한류의 영향으로 음악, 영화, 음식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

한글을 쓰는 인구는 8천만 명으로 세계 13대 언어가 되더니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하려는 말도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온다.

스포츠는 김연아, 박태환, 골프계를 휩쓰는 대한의 남자들, 양궁계는 우리 남녀선수단을 기피할 정도가 되었다. 축구의 연속 월드컵 진출, 동계,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대회를 치른 7개국 중의 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기능올림픽 16연패 중이며, G-20의 장국,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5개 국의 한 나라이며 세계에서 10가 가장 높은 국민의 나라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두 세대 만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혼탁한 국내 실정으로 나라가 하루도 평안하지 않고 뒤끓고 있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가중되고만 있다. 한국의 전통을 연구해 온 하버드 박사 출신인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한국인이 스스로 자괴감 빠지면 소위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라사랑 국학칼럼—장영주 국학원장(代)

그러나 혼탁한 국내 실정으로 나라가 하루도 평안하지 않고 뒤끓고 있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가중되고만 있다. 한국의 전통을 연구해 온 하버드 박사 출신인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한국인이 스스로 자괴감 빠지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뛰어난 문화적 전통을 가진 국가로 이미 선진국"이며 "이제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한국은 각종 지표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등으로 볼 때 한국을 큰 격차로 능가하는 선진국은 없음에도 한국인은 높은 평가에 익숙지 못하다고 한다.

스스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서 열심히 안 하면 빈국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며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고 하면 당황한다고 의아해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한국인은 자신들을 ‘고래 사이에 낀 새우’ 로 인식한다고 한다. 불운하게도 주변국들이 세계 최강인 중국·일본·러시아이며 영토·인구 등을 비교해 볼 때 자연스레 자신을 약소국으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비하는 한국산 제품, 한국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당하는 디스카운트 비율은 평균 58조원에 해당한다. 이 돈을 대외원조에 썼다면 한국은 지구촌 최대의 구세주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라’ 고 주문한다. ‘한국은 인구 2000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제국주의를 채택하지 않고도 선진국이 된 최초의 국가라고 주장’ 한다. 이제 컴퓨터와 SNS의 발전과 확산으로 세계의 국경이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

(사)국학원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한민족의 바른 역사, 문화, 철학을 가르쳐 왔다. 최근에는 ‘국경일 이야기’ 라는 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맞게 교육하여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 또한 400여 회에 걸친 ‘민족혼교육’ 으로 약 2만 명의 가슴에 태극기를 심었고, 전체적으로 약 200만 명에게 우리민족의 환하고 밝은 꿈과 희망의 모습을 알려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개발된 뇌교육이 전 세계 1,000군데에서 교육되고, 특히 남미의 엘살바도르의 전체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를 교육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세계 교육 지도국을 동시에 이루니 코리아는 실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래!

미국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국가가 흘러나오면 멈추어 서서 함께 부르고, 관공서마다, 집집이 성조기가 펄럭인다. 그러나 다민족 사회임에도 한국의 동포들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 마당에도 태극기를 게양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만약 집 밖에 태극기를 게양하면 그곳이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고 애국가를 같이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국민들만이라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태극의 위대한 우주정신으로 나와 민족과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그 힘을 기르고 응집하고 다시 한 번 웅비하자!

대한민국이며, 자, 이제 모두 태극기를 가슴에 품자.

알 림

국학원 회원분들의
경조사를 함께 나누어요!
카톡이나 메일로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다음 레터에 실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담당 김민경

* 010 9525 1785 /coonek@naver.com

생명전자 게시판

11월 7일(목)은 대학입학 수능 날!

홍익인간 인재로 성장할
국학회원 자녀분들에게
사랑의 생명전자를
보내주세요^^

11월 7일(목) 오전 9시에 다 함께
생명전자 발사 !!!

국가는 있으되 국혼은 없구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국민은 있으되 국가관이 없고,
국가는 있으되 국혼이 없구나.
국혼의 뿌리인 국학이 없으니
그 어디에서 국가관을 배울 것인가?
국가관이 없으니 애국심과 애사심이 없고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

언론은 있으되 정론이 없고,
여론은 있으되 열이 없으며,
지식은 있으되 인간존중이 없구나.

양심과 인간애가 살아있어야 할 곳에
이기심과 욕망이 사람과 세상의 눈을 멀게 한
다.

돈과 명예, 출세와 권력이 다인 양 착각하는
이들이 모여 나만 잘살자, 나만 성공하자고

어두운 귀신 춤판을 벌이며 기도하고, 노래하
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세상을 다 가졌다
하는구나.

